

소리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사용자를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확보 방안

테마기획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인 터 뷰

흥겨운 스윙재즈를 연주하는 스페인
재즈 피아니스트 이냐시 테라자

포 커 스

Go! 2018평창 동계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으로!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축제

04 | 시선집중 - 사용자를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확보 방안 / 안동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

06 | 테마기획 -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08 | 인터뷰 - 흥겨운 스윙재즈를 연주하는 스페인 재즈 피아니스트 이냐시 테라자

10 | 포커스 - Go! 2018평창 동계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현장으로!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세상을 향해 달리는 말 / 탁노균(시각1급_대구광역시 서구)

13 | 월드 리포트 - 남아프리카 최초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조셉 - 마이크로소프트사,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알려주는 장난감 고안

14 | 뉴스앨범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할리스커피와 함께하는 커피스쿨' 진행 - 보글보글 죽 만드는 동호회 뒤죽박죽, 2017년 활동시작! - 심봉사임당, 아이들과 봄나들이 떠나요! - 산들산들 봄바람과 함께 즐기는 탠덤바이크 라이딩! - 제31회, 점역·교정사 시험 대비 양성교육 실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공공장소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4월은 봄의 정취와 함께
전국에서 각종 축제가 열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축제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축 제

한글
① 4
② 5
③ 6

점자 일람표															
자 음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	ㅂ ⠠⠠ ⠠⠠	ㅅ ⠠⠠ ⠠⠠	ㅇ ⠠	ㅈ ⠠⠠ ⠠⠠	ㅊ ⠠⠠ ⠠⠠	ㅋ ⠠⠠ ⠠⠠	ㅌ ⠠⠠ ⠠⠠	ㅍ ⠠⠠ ⠠⠠	ㅎ ⠠⠠ ⠠⠠	된소리 ⠠⠠ ⠠⠠
발 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 음	ㅏ ⠠⠠ ⠠⠠	ㅑ ⠠⠠ ⠠⠠	ㅓ ⠠⠠ ⠠⠠	ㅕ ⠠⠠ ⠠⠠	ㅗ ⠠⠠ ⠠⠠	ㅛ ⠠⠠ ⠠⠠	ㅜ ⠠⠠ ⠠⠠	ㅠ ⠠⠠ ⠠⠠	ㅡ ⠠⠠ ⠠⠠	ㅣ ⠠⠠ ⠠⠠					
	ㅕ ⠠⠠ ⠠⠠	ㅖ ⠠⠠ ⠠⠠	ㅗ ⠠⠠ ⠠⠠	ㅛ ⠠⠠ ⠠⠠	ㅜ ⠠⠠ ⠠⠠	ㅠ ⠠⠠ ⠠⠠	ㅑ ⠠⠠ ⠠⠠	ㅕ ⠠⠠ ⠠⠠	ㅖ ⠠⠠ ⠠⠠	ㅗ ⠠⠠ ⠠⠠	ㅛ ⠠⠠ ⠠⠠	ㅜ ⠠⠠ ⠠⠠	ㅠ ⠠⠠ ⠠⠠	ㅑ ⠠⠠ ⠠⠠	ㅕ ⠠⠠ ⠠⠠
약 자	가 ⠠⠠ ⠠⠠	나 ⠠⠠ ⠠⠠	다 ⠠⠠ ⠠⠠	마 ⠠⠠ ⠠⠠	바 ⠠⠠ ⠠⠠	사 ⠠⠠ ⠠⠠	자 ⠠⠠ ⠠⠠	카 ⠠⠠ ⠠⠠	타 ⠠⠠ ⠠⠠	파 ⠠⠠ ⠠⠠	하 ⠠⠠ ⠠⠠	억 ⠠⠠ ⠠⠠	언 ⠠⠠ ⠠⠠	얼 ⠠⠠ ⠠⠠	연 ⠠⠠ ⠠⠠
	열 ⠠⠠ ⠠⠠	영 ⠠⠠ ⠠⠠	옥 ⠠⠠ ⠠⠠	온 ⠠⠠ ⠠⠠	웅 ⠠⠠ ⠠⠠	운 ⠠⠠ ⠠⠠	울 ⠠⠠ ⠠⠠	은 ⠠⠠ ⠠⠠	을 ⠠⠠ ⠠⠠	인 ⠠⠠ ⠠⠠	것 ⠠⠠ ⠠⠠		ㅅ받침 ⠠⠠ ⠠⠠		
약 어	그래서 ⠠⠠ ⠠⠠		그러나 ⠠⠠ ⠠⠠		그러면 ⠠⠠ ⠠⠠		그러므로 ⠠⠠ ⠠⠠		그런데 ⠠⠠ ⠠⠠		그리고 ⠠⠠ ⠠⠠		그리하여 ⠠⠠ ⠠⠠		
숫 자	수표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0 ⠠⠠ ⠠⠠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줄임표 (...) ⠠⠠ ⠠⠠										
영 어	a ⠠⠠ ⠠⠠	b ⠠⠠ ⠠⠠	c ⠠⠠ ⠠⠠	d ⠠⠠ ⠠⠠	e ⠠⠠ ⠠⠠	f ⠠⠠ ⠠⠠	g ⠠⠠ ⠠⠠	h ⠠⠠ ⠠⠠	i ⠠⠠ ⠠⠠	j ⠠⠠ ⠠⠠	k ⠠⠠ ⠠⠠	l ⠠⠠ ⠠⠠	m ⠠⠠ ⠠⠠	n ⠠⠠ ⠠⠠	o ⠠⠠ ⠠⠠
	p ⠠⠠ ⠠⠠	q ⠠⠠ ⠠⠠	r ⠠⠠ ⠠⠠	s ⠠⠠ ⠠⠠	t ⠠⠠ ⠠⠠	u ⠠⠠ ⠠⠠	v ⠠⠠ ⠠⠠	w ⠠⠠ ⠠⠠	x ⠠⠠ ⠠⠠	y ⠠⠠ ⠠⠠	z ⠠⠠ ⠠⠠	영어시작 ⠠⠠ ⠠⠠		끝 ⠠⠠ ⠠⠠	대문자 ⠠⠠ ⠠⠠

[나, 다, 마, 바, 자, 가, 닥,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스, 저, 초, 쓰, 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사용자를 위한 전자정보의 접근성 확보 방안

안동한(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제21조에는 생산 배포하는 모든 전자정보에 대해 이용자에게 차별을 하지 않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민사소송도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전자정보라 함은 PC나 휴대폰을 통해 이용하는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 뿐 아니라 가전기기,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게 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지칭한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전자정보는 이미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많은 생활 필수 업무가 전자정보화 되고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등본발급, 증명서 발급, 민원 등 각종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은행업무, 쇼핑하기, 신문보기, 예약하기 등 주요 생활 업무를 해당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지 않고 PC나 휴대폰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보 서비스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이용자의 불편이나 민원이 생기면 신뢰도 하락이나 손해배상 등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반드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개선한다. 하지만 대부분 테스트는 일반적인 이용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터치하여 큰 문제점이 없으면 통과가 되는 것이다. 전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술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특히 다양한 이용환경의 사용자 테스트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간과하는 것이다.

화면을 볼 수 없는 경우를 배려하여 대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마우스 없이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신경을 쓰는 일은 별도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글자를 좀 더 크게 제공하거나 배경색 대비 글자의 명도를 높게 제공하는 것, 사진 이미지에 구체적인 대체정보를 제공하는 것, 링크 기능에 용도와 목적의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 촉박한 시간적 제한으로 이용을 강제하는 것 등 이용이 어렵거나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편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다.

신체적 제약이나 이용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공된 전자정보를 인식 및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정보접근성이라 한다. 최근 이러한 정보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2017년 1월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보격차 해소'라는 큰 목적을 두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번 설 명절 열차표 예매 사이트에 대한 불편함을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보도했다. 시각장애인의 명절 열차표 구매는 예매 시스템의 접근성 뿐 아니라 절차 등 여러 요소로 인해 불가능한 부분이었고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었던 것이다. 여러 차별요소에 대한 호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장차법을 근거로 한 인권위원회 진정이나 민사소송 등 장애인 당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정부가 마련 중인 '정보격차 해소'의 주요 이슈를 전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이용환경의 사용자 의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보접근성에 대한 표준이나 검증방안이 기술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향후 기술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나 기술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관심과 용기도 절실히 필요하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년 4월 20일, UN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매년 4월 20일은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나라에서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었는데요. 198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부터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짜들 중에서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은 4월이 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4월은 봄이기도 하지만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달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어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최로 공식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현장 낭독이 이루어지며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상,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올해의 장애인상’을 제정해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흥겨운 스윙재즈를 연주하는 스페인 재즈 피아니스트 이냐시 테라자

자유로운 그루브(groove)와 즉흥적인 연주,
재즈만이 가지는 매력인데요.
스페인 재즈 피아니스트,
이냐시 테라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재즈 팬들에게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페인의 재즈 피아니스트 이냐시 테라자(Ignasi Terraza)입니다. 한국에는 2012년에 EBS ‘스페이스 공감’ 출연을 위해 첫 방문한 이후 지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 2월 17, 18일에는 통영국제음악당 프라토리아 델 아르테(Trattoria dell ‘Arte)에서 27번째 재즈나이트 연주자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재즈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즈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음악과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 했습니다. 당시 전공에 클래식 수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재즈에 매력을 느꼈던 터라 클래식보다는 재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죠. 졸업 후에는 6년 정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고, 1991년에 컴퓨터 엔지니어로서의 삶을 그만 두고, 본격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10세 때 시각장애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살 때 일스병(Eales disease)이라고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게 됐어요. 유리체 출혈에 의해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감소되는 병이죠. 처음 1년 동안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다녔지만 결국 의사에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큰 좌절을 하게 됐습니다.

좌절과 함께 시각장애를 얻은 후 특수학교에 다니게 됐는데, 그 때 시각장애인이 나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수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냐시 테라자 씨의 음악에는 다양한 재즈 리듬 중에서도 스윙 리듬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스윙 리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스윙은 재즈 중에서도 온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음악입니다. 클래식과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클래식은 단조롭지만 재즈는 즉흥적이고, 그 즉흥성에 연주자의 상상력을 담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연주자의 상상력과 에너지가 가득 찬 리듬이 바로 스윙이죠.

한국의 재즈 뮤지션을 접하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국의 재즈 뮤지션 중 인상 깊었던 3명이 있습니다. 드러머 김민찬, 콘트라베이스스트 김대호, 색소포니스트 푸름, 이 세 명의 뮤지션을 만나고 한국의 재즈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로 인해 한국의 재즈가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스페인의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테테 몬테리우(Tete monteliu)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팬들에게 발표된 앨범 중 추천해주시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보통 앨범을 낼 때에는 뮤지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추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곡을 추천하자면 ‘Live at the Living Room-Bangkok’ 앨범의 1번 트랙인 ‘An emotional dance’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뉴욕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 스페인 재즈싱어인 안드레아 모티스(Andrea motis)가 불러 한국의 재즈 팬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o! 2018평창 동계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현장으로!

2018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첫 걸음,
열정 가득한 선수들의 테스트이벤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2월부터 강원도 평창에서는 ‘2018평창 패럴림픽 테스트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스트이벤트는 ‘2018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이 대회가 열리는 지역 및 경기장에서 대회를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추후 치러질 패럴림픽에서 보다 친숙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번 테스트이벤트에서는 총 29개의 대회(올림픽20, 패럴림픽5, 비경쟁2, 비경기2)가 열렸으며 3,000여 명의 선수와 1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양재림, 황민규, 최보규 등 시각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바이애슬론, 알파인 스키, 노르딕 스키 등의 종목에 출전하여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번 테스트이벤트를 개최한 2018평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담당자는 “16/17시즌 테스트이벤트의 긴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테스트이벤트까지 최선을 다해 1년 뒤 평창에서 세계 최고의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18년, 꿈을 펼칠 장애인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세상을 향해 달리는 말

탁노균(시각1급_대구광역시 서구)

오늘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승마강습회에 다녀왔다. 사실 내가 장애인인 되기 전에도 그저 말이란 들판을 뛰어다니는 미끈한 몸매, 멋있는 자태의 흑마, 백마 그리고 갈색 말 등으로 생각했었다.

"히힃-" 콧김을 내뿜으며 머리를 뒤로 쳐드는 모습의 거친 울음소리를 가진 말. 아주 오래전 영화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장면,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들판을 달리는 어느 여인의 색깔 있는 모습,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었을까?

이른 아침,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결장소에 가니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승마강습회에 참가하는 시각장애인은 모두 서른 명이 넘었다. 젊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생각과 달리 연세 지긋한 분들도 많았고, 여자회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모두들 말을 타본다는 기대감에 약간은 들뜬 목소리로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체육회 직원들이 나와 인원을 체크하고 경산 영남승마장으로 버스는 출발했다.

초겨울 날씨를 보이는 승마장에는 찬바람이 이리저리 휩쓸고 다녔다. 그 바람 속에서 말똥 냄새가 묻어나와 정말 여기가 말들이 사는 동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우리가 탈 말은 한라마라고 했다. 순수 토종말이라 덩치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영리하고 잘 달리는 말이라고 했다.

세 명씩 승마장으로 나가 머리에 보호용 헬멧을 쓰고 영남대 특수체육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말 잔등에 올라탔고, 고삐를 잡고 길을 안내하는 기수와 좌우에서 혹여 말에서 떨어져 낙상이라도 할까 다리를 잡아주는 두 학생이 보조를 해주었다.

사람들은 순서대로 말에 올라타 따라다 따라다 승마의 즐거움, 신기함, 약간의 긴장감, 두려움, 쾌감 등을 느끼며 한 바퀴씩 돌았다.

대기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사실 승마장은 처음 와보았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풍겨오는 말똥 냄새, 풀 냄새, 이것저것 온갖 냄새들이 만들어내는 시골스런 아니 자연의 냄새 속에서 승마의 기대감에 부풀었다.

드디어 나의 차례가 되었다. 도우미가 씌워주는 헬멧의 고리를 잠그고, 먼저 말을 타고 내린 동료에게서 장갑을

빌려 타는 곳으로 갔다. 대기하고 있던 말의 곁으로 가서 안내자가 시키는 대로 발판에 올라서서 왼발을 걸고 오른 다리를 들어 사뿐히 올라탔으면 좋았을 걸 엉거주춤하게 겨우 말 잔등에 올라앉았다.

따각따각 말은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좌우로 엉덩이가 뒤통거리는지 등에 올라앉은 내 몸도 뒤통거리는 거 같아 나는 손잡이를 움켜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간혹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려하면 학생들이 다리를 잡아 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말은 평지를 걸어가다가 약간 오르막을 올라가기도 하고 내리막을 내려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기수가 오르막이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라고 했고, 내리막에서는 상체를 뒤로 젖히라고 일러주었다. 평지에서는 조금 달려볼 거라며 다리에 힘을 주라고 하더니 정말 말 달리는 기분이 들도록 속도를 내었다. 내 몸이 들쭉들쭉 말 잔등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게 마치 내가 사극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이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는 모습같이 느껴졌다. 남들이 보았으면 '뭘 저렇게 엉성하게 타나?'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 달리는 기분이 들긴 들었다.

내가 달릴 때 기수를 비롯한 학생들은 말처럼 내 곁에서 달려야 했기 때문에 그들도 숨이 찰 것이라 생각하니 고생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다.

한 바퀴 도는데 열추 3분에서 5분 정도 되었는가? 아무튼 그리 오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와 나는 말에서 내렸다.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그리 어렵지는 않은 거 같았다. 물론 그냥 걸어가는 말이고, 잠깐 동안은 달리는 시늉을 하기는 했으나 재미도 있었다.

오후에 다시 한 번씩 말을 탔다. 두 번째 말을 탈 때는 처음과 달리 균형 감각이 살아나 자세도 안정되었고, 승마의 제대로 된 기분을 즐길 수 있었다. 말이 달릴 때도 몸의 흔들림이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되었다. 얼굴에 스치는 바람의 상쾌함도 느낄 수 있었고, 살아있는 말의 생명력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아니면 말과 교감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

처음으로 말을 타본 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애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금 깨달은 날이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조셉

남아프리카 웨스턴 케이프 주의 한 마을인 우스터에는 방글라데시 출신의 남아프리카 최초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로서 조셉(Joseph Matheatau)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녹내장으로 인해 3세 때 시각장애를 얻어 2010년에 실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시키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커피숍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노력 끝에 현재는 이렇게 바리스타로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내 꿈은 남아프리카의 가장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어 나만의 카페를 창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알려주는 장난감 고안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에서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한 장난감을 제작했습니다.

이 장난감은 ‘토리노(Torino)’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야기, 시, 노래 등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세계에서 컴퓨터 과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각장애가 컴퓨터 과학을 배우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올 가을부터 100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국의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할리스커피와 함께하는 커피스쿨' 진행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에서는 지난 3월 4일과 25일에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원데이 교실'로 '할리스커피와 함께하는 커피스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12명, 비장애인 12명이 각각 짝이 되어 원두의 역사와 종류, 핸드드립 커피와 머신커피의 차이, 핸드드립의 용품에 대해 배우고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하여 원두의 원산지, 추출 시간과 온도에 따른 커피의 향과 맛의 차이를 느껴보았는데요. 참가자들은 "많은 커피 종류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커피를 마시는 입맛이 까다로워지겠다"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보글보글 죽 만드는 동호회 뒤횈박죽, 2017년 활동시작!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동호회활동지원사업의 뒤횈박죽 팀이 2017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죽을 만들어보는 뒤횈박죽의 첫 메뉴는 전복낙지죽이었습니다. 5명의 동호회 참가자들이 전복과 낙지를 직접 손질하고 죽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 기호에 맞는 조미료를 첨가한 죽을 맛보며 서로의 요리 팁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이번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몸이 아프면 식사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제 혼자서도 죽을 끓여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심봉사임당, 아이들과 봄나들이 떠나요!

지난 3월 18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동호회 활동지원사업의 심봉사임당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모여 봄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경기도 의왕으로 떠난 심봉사임당은 한국철도박물관, 의왕 조류생태과학관, 의왕레일파크를 방문하여 봄의 기운을 한껏 느꼈는데요. 이번 방문지에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봄나들이에 함께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실컷 뛰어놀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과 함께 즐기는 탠덤바이크 라이딩!

지난 3월 29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지역 사회복지팀에서는 탠덤바이크 교실이 열렸습니다. 탠덤바이크는 2인이 함께 타는 자전거인데요. 시각장애인 4명과 파일럿 4명으로 구성된 4팀의 참가자들은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출발하여 중랑천 의정부 방향으로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이번 탠덤바이크 교실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날씨가 많이 풀려 자전거를 타니 기분이 상쾌했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전거를 타고 힐링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31회, 점역·교정사 시험 대비 양성교육 실시!

지난 4월 1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점역·교정사 검정시험에 대비한 양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어, 영어의 점자규정 및 수학/과학(컴퓨터) 점자에 대한 강의로 진행된 이번 양성교육은 오는 4월 22일에 치러질 제 31회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양성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모두 4월 22일에 좋은 결과로 점역·교정사를 취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장소를 방문한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시각장애인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힘든 점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니라 거리 감각이나 위치의 낮췄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어렵다'라는 생각보다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공공장소의 화장실(물 내림 스위치와 휴지걸이의 위치 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때, 내부의 간략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기둥 등에 부딪히지 않게 안내하시고, 기물의 위치를 알려 주시면 낯선 곳에 대한 긴장감을 덜 수 있습니다.



|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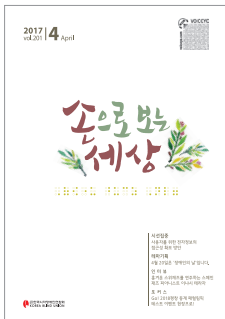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심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7년 4월 201호

발행일 2017년 4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